

매일묵상일기

가정에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마음의 할레”

2026년 8월 21일 (금)

- 찬송 (288장)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에스겔 44:1~14) 다함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레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겔 44:9)

- 묵상자료 인도자

오늘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는 '황금문'이 있습니다. 이 황금문은 현재 막혀 있는데, 이 문에 대해서는 여러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중 하나가 에스겔 44장 1~3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막혀 있는 황금문은 메시아가 올 때 열릴 것이며, 메시아는 이 황금문을 통과해 들어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도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 황금문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문 가까이 있는 무덤에서부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황금문 근처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황금문 근처뿐만 아니라, 건너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감람산 기슭까지도 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장소가 승천하셨던 감람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부활하겠다'는 마음으로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했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6~8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며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할레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레를 받아야 합니다(9절). 몸의 할레는 받고자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할레받은 자로 보이거나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의 할레가 아니라 마음의 할레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레를 통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 기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마음의 할레를 통해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